



전주김제완주축협, 장학금 1000만원 기탁

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창수) 관계자들이 김제시립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1천만 원의 장학금을 2년 연속 기탁했다고 밝혔다.

2003년도에 설립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은 한우 이력제, 육가공, 사료 및 퇴비 제조 등 축산업 관련 업무와 예금, 보험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이행하며 조합원의 축산경영 안정화에 힘쓰면서 축산 농가의 복지 증진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총 4,500만원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김제 교육발전에 기여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지역과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이번 장학금이 우리 김제를 빛낼 우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무주소방서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여름철 수난사고는 대부분 우리의 방심에서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철마다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안전수칙으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물에서는 무모한 행동금지 △절대 혼자 물놀이 하지 않기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관촌면, 가로환경 정비 나서

임실군 관촌면이 지난달 31일부터 패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화단 12개소를 비롯해 주요 도로변 15개 구간 30km를 대상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당근 제거 및 화단 풀베기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촌면 가로환경 사업은 관내 20여 명의 사역자를 선정해 녹음기 패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족 작업 전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시 주의사항과 안전 정비 착용 등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를 배치해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군 계북면, 면민 화합·소통

제74회 계북면민의 날·제1회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 함께 열어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달 29일 계북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제74회 계북면민의 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훈식 장수군수, 정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 의원, 박용근 도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출향인, 면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1회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를 함께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계북면 체육회, 계북면 참샘골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축사, 면민의 장 시상 등 면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투포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로 구성된 체육대회와 면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면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계북면민의 날 행사 이후에는 제1회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가 개최돼 계북면의 농특산물인 토마토와 수박을 홍보하는 먹거리 장터, 판매장, 체험·참여프로그램 램이 진행됐으며, 오후 6시부터는 기수 김성환과 함께 하는 축제 전야제 행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오후 7시 7분쯤 갑작스런 규모 3.5 지진 발생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일시 중단하고,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계북면은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에서 토마토와 수박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양의 농산물을 준비한 농



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장수군청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정관 축제위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계북면민의 날과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에는 어렵게 축제가 빨리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상 계북면장은 “계북면민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제74회 계북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함께해주시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갑작스런 지진으로 제1회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가 운영 중단 및 취소돼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군자율방재단, 익산시 수해복구 지원 나서

순창군 자율방재단(단장 김석준)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1일 자율방재단 47명은 장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화실리 일원을 찾아 유실된 농경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합동 화재 안전조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지난달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와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는 보건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실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파난계획의 수립 여부 △자체접검 및 정기적 접검 등 적정 실시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소방시설 청탁·폐쇄행위 △환자·의료진의 파난대책 수립여부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다수의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파가 몰리면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차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잼버리 대원들, 정읍서 마을형 HOHO 프로그램 참여

세계 스파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대원들이 지난달 31일 ‘마을형 HOHO’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정읍시 철보면 태산선비마을을 찾았다.

마을형 HOHO 프로그램의 HOHO는 Home Hospitality의 약자로, 잼버리행사 기간에 해외 스파우트 대원을 개최지 스파우트 대원 기관에 초대해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경우 농촌마을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해외 스파우트 대원들은 2박 3일간 농촌마을에서 체류하며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정읍시의 프로그램 추진 장소는 달고운 청정사교마을과 태산선비마을이다. 스파우트 대원들은 위 마을에 체류하며 전통놀이, 서예 및 부채 만들기와 같은 전통문화체험, 한식체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탐방 등을 했다.

전정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세계 스파우트 잼버리 참여를 위해 정읍을 방문한 외국인 대



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마을형 HOHO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영지에서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 안전히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직무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1일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 3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및 사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들은 남원시 관내의 화재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재난현장 보조업무 수행,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안전과 수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소방서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소양 교육과 전문성 있는 현장 활동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소재실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